

장모 부양의식과 부부관계의 질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on-in-Law's Support Consciousness towards Mother-in-Law and Marital Quality Based on the Relation-Satisfaction between the Mother-in-Law and Son-in-Law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전 세 송
강 사 김 수 경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Se Song Jeon

Lecturer : Sue Kyung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upport consciousness of the son-in-law's towards their mother-in-laws and also to study their marital quality(marital satisfaction, spousal influence, spousal loyalty) based on the relation-satisf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We selected 319 married men who had their mother-in-laws as participants of this study and their age groups ranged from the twenties to the sixti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ital quality and also in the son-in-law's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with respect to the two-income family,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educational level. (2)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influence and support consciousness towards mother-in-law affected positively the relation-satisfaction between the mother-in-laws and the son-in-laws.

주제어(Key Words) : 부부관계의 질(marital quality), 장모 부양의식(support consciousness toward mother-in-law),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 (relation-satisf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I. 서론

현대 사회의 친족관계는 종래의 시가와 부계중심의 접촉에서 처가와 모계 친척으로 관계가 확대되고 있어서 양계적 친족관계를 보인다(Choi, 2007). 실제로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면, 장모와 함께 외출을 하거나 장을 보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길 때면 딸보다 사위를 먼저 찾는 장모도 있다(Herald Business, 2010, April 1; Weekly Kyunghyang magazine, 2005, March 1). 며느리와 사위를 대상으로 한 Yoo(2006)의 연구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친가와 처가의 접촉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Lee, Kim, Choi, Ham과 Kim(2002)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 아들과 같이 살겠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난 반면, '딸을 포함해 자녀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같이 살겠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으며, '친정부모를 모실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이 86%로 나타나 부양의식에서도 양계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부양의식(Filial responsibility)은 부양의무감, 부양태도, 부양책임의식, 효행의지·효행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Park, 2000). Lee(1998)의 연구에서 부양의식은 부양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Lee(2001)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해 갖는 부양자의 의지로 보고 있다. 즉, 부양의식은 부모에 대한 의무, 보호부양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부양태도 또는 노부모의 복지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 의무감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의무와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Kim, 2005).

이러한 부양의식과 기혼 자녀의 관계적 지각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부양의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성인 남녀, 직장인 등 대상별 혹은 세대별로 노인 부양의식을 비교하는 연구(J-Y. Kim, 2001; Y-S. Kim, 2001; Suh, 2008)가 많고, 부양의식과 부양행동 및 부양부담감과의 관계 연구(Kim, 2005; Song, 1987; Woo, 2003)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Lim(2007)은 부부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Lee(2001)는 기혼 딸과 친정어머니의 친밀감과 부양의식을 연구하였다.

이렇듯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현대의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므로 딸을 포함한 모든 성인 자녀를 부양 주체로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Son, 2004). 즉, 65세 이상 인구의 주 부양자에 관한 Statistics Korea(2003) 자료에 의하면, 33%의

노인들이 장남이 아닌 그 외의 아들과 딸에 의해 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남 아닌 기혼아들이나 딸과의 동거 또한 많아졌는데,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딸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Lee & Park, 2010). 이처럼 부양에 대한 의식 및 실태의 변화는 노부모-성인 자녀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노부모-성인 자녀간의 관계를 다룬 인척연구의 대부분이 고부관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예로부터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속담이나 애급옥오(愛及屋烏)라 하여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집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마저도 귀엽게 보인다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사위가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주변의 상황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한 도구로 결혼만족도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인척관계와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은 주로 고부관계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Bryant, Conger과 Meehan(2001) 및 Nicol(2006)은 결혼만족도가 고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Ades(2003)는 부부간 긴장이 심할수록 고부간 긴장도 심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 때 고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I-A. Park, 2008). 그러나 인척관계의 한 부분인 장모-사위 관계에 있어서 사위의 결혼만족도가 장모-사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사위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가장 친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으로부터의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아내의 영향력은 간과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Rittenour(2009)는 고부관계 연구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 대한 남편의 표현적 지지 정도'를 "배우자 영향(spousal influence)"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배우자(아내)의 정서적·표현적 지지 정도를 "배우자 영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영향 정도에 따른 인척관계 대상자의 관계적 지각을 다룬 연구가 아직 없지만, 그 필요성은 관련 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다. Park(2005)은 남편의 역할이 고부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보았고, Rittenour(2009)도 남편이 고부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Limary, 2002; Sung & Lee, 2002)에서도 고부관계에서 아

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이처럼 남편은 고부간에 악감정이 생기도록 유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Adler et al., 1989),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통해 아내와 어머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고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듯 장모, 사위 사이에선 아내가 관계 설정의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격려 및 지지가 장모-사위 간 관계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사료된다.

이와 유사하게 Rittenour(2009)는 고부관계 연구에서 시어머니 혹은 며느리(아내)에 대한 남편(배우자)의 공공연한 편들을 “배우자 충성도(spousal loyalty)”라 언급하였다. 즉, 배우자인 남편이 본인의 어머니(시어머니) 혹은 아내(며느리)의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은 관계로 지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에게 더 강한 유대감을 지속시켜주기를 기대한다. 며느리는 본인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충성도를 보이는 남편에 대해 적대적이며, 그럴 경우 시어머니와의 긴장이 심해지게 된다. 반면,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아내에게 편파적인 충성도를 보인다고 인식하면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Rittenour, 2009).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갈등의 내막을 살펴보면 과거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직접 괴롭히는 경우는 크게 줄고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 발단이 된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Hankyung, 2007, August 23). 이와 유사하게 배우자인 아내가 보여주는 충성도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배우자 충성도(spousal loyalty)를 사용하여 장모-사위 관계를 연구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으로 넣고자 한다.

현재까지 실시된 인척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고부관계 연구의 경우, 주로 고부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회에 퍼져있던 고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Park, 2005).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듯이, 초기 고부관계 연구처럼 고부갈등의 실태와 그 원인 규명에 천착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위 본인이 지니고 있는 부양에 대한 의식과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연구 실정을 고려하여 특히 사위 본인이 지니고 있는 부양에 대한 의식적 측면이 장모-사위 간 관계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양에 대한 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장모-사위 간 관계적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를 부부관계의 질 변인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추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인척관계의 한 부분인 고부관계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그 결과도 다양하게 도출되었다(Kwon, 1985; Lee, 1990; Park, 1990). 그 중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장모 부양의식과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와 관련된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위의 장인·장모 부양부담감을 다룬 Woo(2003)의 연구에 따르면, 출생순위만이 장인·장모 부양의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장인·장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인·장모 부양부담감은 직업, 소득, 본인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부관계의 질 관련 변인은 주로 결혼만족도를 다룬 경우가 많았고 사위가 아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는데,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Choi, 1987; O, 1997; Yoo, 1986), 남녀 모두 자녀가 있을 때보다 자녀가 없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7; O, 1997). 또한 남성의 경우 직업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Cho, 2003; Yoon, 2010). 배우자 영향이나 배우자 충성도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차이를 다룬 국내연구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장모-사위 간 관계 변인이 사위의 관계 만족도 및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Jeon, Kim과 Jeon(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1명인 사위보다 3명 이상인 사위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연구결과들은 표집 대상에 따라 결과의 유의미성이 달라질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추가시킨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모-사위 관계 연구를 확장시키기 위한 탐색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롭게 맺어지게 되는 인척관계 연구의 폭을 넓히고, 사위의 지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장모-사위 관계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 및 상담 등과 같은 실천적 대안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장모 부양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319)

Variable	Category	N(%)
Age	less than 35	93(29.2)
	35~45	149(46.7)
	more than 45	77(24.1)
Education Achievement	High School and Less	45(14.1)
	College Grad	56(17.6)
	University Grad	149(46.7)
	Graduate or more	69(21.6)
Occupation (N = 315)	Professional & Directorate	98(31.1)
	Office Workers	125(39.7)
	Production & Sale	92(29.2)
Earnings (10,000 won)	150 and less	15(4.7)
	151~250	90(28.2)
	251~350	107(33.5)
	351~450	52(16.3)
	451 and more	55(17.2)
Duration of Marriage (year)	Less than 5	103(32.3)
	5~10	79(24.8)
	10~15	50(15.7)
	More than 15	87(27.3)
Family Life Cycle (standard: first child)	Childbearing & Preschool age	165(51.7)
	School Age	68(21.3)
	Teenagers	43(13.5)
	Launching Young Adults	43(13.5)
Numbers of Children	One	121(37.9)
	Two	170(53.3)
	More Than Three	28(8.8)
Dual Earner or Non-dual Earner	Dual Earner	141(44.2)
	Non-dual Earner	178(55.8)
Son-in-law's Birth Order	First & Only Child	102(32.0)
	Second and More	101(31.7)
	The Youngest	116(36.4)
Spousal Birth Order	First & Only Child	113(35.4)
	Second and More	126(39.5)
	The Youngest	80(25.1)

향, 배우자 충성도),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장모 부양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기혼 남성 중 장모가 생존해 있는 사위 3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제시한 Table 1에 의하면, 사위의 연령은 35세~45세 미만이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 종사자가 39.7%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251만원~350만원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지속년수의 경우, 5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32.3%), 가족생활주기의 경우 첫 자녀 유아기 이하가 5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수의 경우 2명이 53.3%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44.2%,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55.8%에 해당했다. 사위의 출생순위의 경우 막내가 36.4%로 가장 많았고, 아내의 출생순위는 둘째 이상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 척도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 측정을 위해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상에서 느끼는 친밀감, 편안함, 유쾌함, 만족감 등을 의미하는 Jeon 외(2011)의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에게 가치롭고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고 장모와 함께 있을 때 사위가 장모로부터 심리적 친밀감, 유쾌함 등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98이었다.

2) 사위의 장모 부양 의식 척도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이란 장모의 노후를 사위가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임의식이 내재된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Woo(2003)의 장인·장모 부양의식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장모도 본가 부모와 동일하게 모실 수 있다', '장모를 위해 딸과 사위도 아들, 며느리와 똑같이 재정적 원조를 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4이었다.

3) 부부관계의 질

(1)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란 사위가 배우자(아내)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가지는 기대 및 욕구의 실제 충족 정도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Schumn 외 (1986)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지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혼생활 전반에서의 개인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KMSS는 총 3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 방법은 “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매우 만족한다”에 이르는 7점 Likert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6이었다.

(2) 배우자 영향 척도

배우자 영향이란 배우자(아내)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격려로서 남편(사위)과 친정어머니(장모) 관계에 대한 배우자(아내)의 정서적·표현적 지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Rittenour(2009)의 배우자 영향 척도를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장모와 내가 가깝게 지내면 아내는 기뻐한다’, ‘아내는 장모와 내가 너무 소원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문항에 해당하며, 각 문항에 대한 평가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형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와 사위 관계에 대한 아내의 정서적·표현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75였다.

(3) 배우자 충성도 척도

배우자 충성도란 남편(사위)과 친정어머니(장모) 사이에서 상황이나 사건에 관계없이 배우자(아내)가 남편(사위)을 향해 보여주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편들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Rittenour(2007)의 배우자 충성도 척도를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아내가 장모에 우선하여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편들이나 승인을 보인다고 인식하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내는 장모와의 관계보다 나와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다’, ‘아내는 장모의 어떤 요구가 비합리적일 경우 하지 말라고 말해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형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아내)의 충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77이었다.

3. 자료수집절차

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기혼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통해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원생 및 지인을 통하여 추천받은 관공서, 학교, 금융회사, 서비스 및 유통 관련 회사 등 사위의 직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과 우편 회수를 병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거주지역은 대구·경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경남 등이었으며, 장모가 생존하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5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389부(회수율 86.4%)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319부(응답율 70.9%)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장모 부양 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가능한 점수 범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1.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장모 부양 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위의 장모 부양 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 및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s(Number of questions)	M	SD	Range
son-in-law's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 in-laws (19)	3.61	.75	1~5
Marital Quality	marital satisfaction(3)	5.83	1.18
	spousal influence(6)	3.81	.64
	spousal loyalty(5)	3.33	.66
Son-in-Law's Support Consciousness(10)	3.67	.73	1~5

Table 3.
Son-in-law's Support Consciousness, Marital Quality, and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by Descriptive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Support Consciousness			Marital Quality						Son-in-law's 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					
			M	SD	F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Influence			Spousal Loyalty					
						M	SD	F	M	SD	F	M	SD	F	M	SD	F
①	35(-)	93	3.67	.80		5.77	1.22		3.87	.62		3.23	.75		3.66	.74	
	35~45	149	3.68	.73	.00	5.93	1.12	1.14	3.81	.66	.71	3.38	.59	1.57	3.59	.78	.41
	45(+)	77	3.67	.66		5.70	1.23		3.75	.61		3.36	.66		3.57	.71	
②	High School and Less	45	3.73	.69		5.70	1.20		3.77 ^{ab}	.62		3.33	.77		3.60	.66	
	College Grad	56	3.57	.87	.61	5.76	1.30	.82	3.68 ^a	.64	3.30*	3.31	.66	1.99	3.56	.81	.65
	University Grad	149	3.67	.68		5.81	1.04		3.79 ^{ab}	.62		3.26	.62		3.57	.70	
	Graduate or more	69	3.73	.75		6.01	1.32		4.01 ^b	.65		3.49	.63		3.72	.85	
③	Professional& Directorate	98	3.68	.70		6.02	.99		3.88	.65		3.39	.57		3.67	.70	
	Office Workers	125	3.73	.79	.89	5.85	1.20	2.47	3.86	.62	3.13*	3.33	.65	.52	3.63	.79	.90
	Production&Sale	92	3.60	.66		5.66	1.21		3.67	.63		3.30	.73		3.53	.67	
④	150(-)	15	3.47	1.00		5.44	1.87		3.70	.78		3.03	.74		3.59	1.19	
	151~250	90	3.65	.69		5.86	1.07		3.82	.59		3.35	.69		3.63	.73	
	251~350	107	3.74	.75	1.22	5.84	1.14	.77	3.90	.62	1.21	3.38	.62	1.00	3.67	.70	.73
	351~450	52	3.77	.71		5.99	1.10		3.75	.64		3.30	.56		3.58	.70	
	451(+)	55	3.54	.69		5.72	1.25		3.70	.70		3.31	.74		3.47	.78	
⑤	5(-)	103	3.64	.76		5.88	1.00		3.87	.61		3.31	.65		3.68	.72	
	5~10	79	3.72	.85	.20	5.78	1.41	.86	3.86	.70	1.11	3.24	.72	1.05	3.56	.81	.48
	10~15	50	3.65	.62		6.02	.90		3.73	.68		3.40	.58		3.58	.78	
	15(+)	87	3.69	.65		5.70	1.28		3.74	.58		3.40	.64		3.57	.72	
⑥	Childbearing & Preschool age	165	3.66	.78		5.83	1.15		3.88	.65		3.28	.68		3.64	.72	
	School Age	68	3.66	.74	.11	6.01	1.09	1.37	3.76	.67	1.23	3.39	.59	.68	3.58	.86	.21
	Teenagers	43	3.70	.70		5.84	1.25		3.70	.59		3.41	.55		3.55	.77	
	Launching Young Adults	43	3.72	.57		5.55	1.32		3.76	.58		3.34	.77		3.58	.68	
⑦	One	121	3.62	.84		5.85 ^{ab}	1.17		3.87 ^{ab}	.62		3.25	.68		3.53 ^a	.85	
	Two	170	3.69	.66	.93	5.73 ^a	1.23	3.53*	3.73 ^a	.65	3.79*	3.36	.63	1.75	3.61 ^{ab}	.67	2.66*
	More than Three	28	3.82	.64		6.36 ^b	.63		4.05 ^b	.54		3.47	.67		3.89 ^b	.72	
⑧	Dual Earner	141	3.74	.71	2.18	5.98	.92	4.03*	3.88	.62	3.16	3.38	.63	1.22	3.63	.71	.73
	Non-dual Earner	178	3.62	.74		5.71	1.34		3.76	.65		3.29	.67		3.59	.79	
⑨	First & Only Child	102	3.70	.74		6.01	1.05		3.92	.58		3.46	.60		3.71	.71	
	Second and More	101	3.68	.66	.28	5.77	1.16	1.72	3.72	.59	2.71	3.28	.63	3.22*	3.51	.76	1.81
	The Youngest	116	3.63	.79		5.73	1.29		3.79	.71		3.26	.71		3.59	.78	
	First & Only Child	113	3.77	.77		5.72	1.30		3.84	.67		3.32	.73		3.59	.80	
	Second and More	126	3.62	.67	1.61	5.84	1.16	1.14	3.76	.60	.61	3.35	.57	.07	3.57	.68	.70
	The Youngest	80	3.62	.76		5.98	1.01		3.85	.65		3.33	.68		3.69	.79	

Note. ① Age ② Education achievement ③ Occupation ④ Earnings(10,000 won) ⑤ Duration of Marriage(year) ⑥ Family Life Cycle ⑦ Numbers of Children ⑧ Dual Earner or Non-dual Earner ⑨ Birth Order ⑩ Son-in-law ⑪ Spouse

*p < .05

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장모 부양의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없었다. 다음으로,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의 경우, 맞벌이 여부($F = 4.03, P < .05$)와 자녀수($F = 3.53,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영향의 경우, 교육수준($F = 3.30, P < .05$), 직업($F = 3.13, P < .05$), 자녀수($F = 3.79,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 충성도의 경우, 사위의 출생순위($F = 3.22,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의 경우, 자녀수($F = 2.66,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위의 부양의식은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beta = .62$). 즉, 사위의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위의 부양의식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39%였다.

3.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4.
Sim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at Son-in-law's Support Consciousness affect to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Independent Variables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B	SD	β
Son-in-law's Support Consciousness	.64	.05	.62***
F	200.39***		
R ²	.3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at Son-in-law's Marital Quality Variables affect to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Independent Variables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B	SD	β	
Marital Quality	Marital Satisfaction	.23	.03	.35***
	Spousal Influence	.39	.06	.33***
	Spousal Loyalty	.06	.06	.05
F	58.83***			
R ²	.3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관계의 질 변인 중에서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만족도($\beta = .35$)와 배우자 영향($\beta = .33$)이었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인 아내의 영향 정도가 높을수록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의 질 변인은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를 3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장모 부양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장모 부양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고,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을 2단계로,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을 3단계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직업, 가족생활주기, 맞벌이 여부, 출생순위를 가변수화하고 다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beta = .23$)만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6%였다. 2단계에서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을 투입한 결과, 1단계의 자녀수($\beta = .17$)와 아내의 출생순위($\beta = .10$)는 여전히 유의미 했으며, 투입된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beta = .61$)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증가된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을 투입한 결과, 1단계의 자녀수($\beta = .14$) 및 2단계의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beta = .44$)이 여전히 유의미 하였다. 투입된 결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at Variables affect to Son-in-law's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Independent Variables			Relation-satisfaction with their mother-in-laws								
			step1			step2			step3		
			B	SD	β	B	SD	β	B	SD	β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ccupation	Age	-.01	.02	-.11	.00	.01	-.01	.00	.01	-.03
		Education Achievement	-.02	.05	-.03	-.01	.04	-.02	-.03	.04	-.03
		Office Workers(Dummy)	-.04	.10	-.03	-.06	.08	-.04	-.03	.08	-.02
		Production&Sale(Dummy)	-.14	.12	-.09	-.07	.10	-.04	-.02	.09	-.01
		Earnings	.00	.00	-.01	.00	.00	-.06	.00	.00	.02
	Family Life Cycle	Duration of Marriage	.00	.00	-.19	.00	.00	-.22	.00	.00	-.14
		School Age(Dummy)	.35	.34	.16	.23	.27	.11	.19	.25	.09
		Teenagers(Dummy)	.15	.23	.07	.09	.18	.04	.06	.17	.03
		Launching Young Adults (Dummy)	-.05	.15	-.03	-.06	.12	-.03	-.08	.11	-.04
		Numbers of Children	.28	.08	.23***	.20	.07	.17***	.17	.06	.14*
Birth Order	Dual Earner or Non-dual Earner(Dummy)	.08	.08	.05	-.01	.07	.00	-.06	.06	-.04	
	Son-in-law Second and More(Dummy)	-.12	.10	-.08	-.07	.08	-.05	-.01	.08	-.01	
	The Youngest (Dummy)	-.16	.11	-.10	-.14	.09	-.09	-.09	.08	-.06	
	Spouse Second and More(Dummy)	.07	.11	.04	.18	.09	.10*	.12	.08	.07	
	The Youngest (Dummy)	-.05	.10	-.03	.08	.08	.05	.05	.07	.03	
Son-in-law's Support Consciousness						.62	.05	.61***	.44	.05	.44***
Marital Quality	Marital Satisfaction								.13	.03	.20***
	Spousal Influence								.23	.06	.20***
	Spousal Loyalty								.03	.05	.02
F			1.30			13.27***			15.20***		
R ²			.06			.42			.49		
ΔR ²			.06			.36			.07		

Note. Based on the Variable - Occupation: Professional & Directorate , Family Life Cycle: Childbearing & Preschool age , Dual Earning or Non-dual Earning: Non-dual Earning, Birth Order: First and Only Child
 * $p < .05$ ** $p < .01$ *** $p < .001$

혼만족도($\beta = .20$)와 배우자 영향($\beta = .20$)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증가된 설명력은 7%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과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장모-사위 간 관계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없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부모 부양의식 및 상호교류를 중심으로 사위의 장인·장모 부양부담감을 연구한 Woo(20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위 본인의 출생순위만이 부양의식에 차이를 보였다. 출생순위가 넷째나 다섯째 이하인 집단이 장인·장모 부양의식이 가장 높았고, 첫째나 둘째인 집단이 장인·장모 부양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로 비추어볼 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남의 부모 부양의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아내(사위의 배우자)의 출생순위가 이러한 양계적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예측되어 변인으로 투입하였으나 사위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먼저 결혼만족도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사위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의 사위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고, 자녀수가 2명인 사위보다 3명 이상인 사위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

의 사위가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생활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2000; Lee & Kang, 2001; Yoo, Kang, O, & Lee,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 내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직업에서 받는 긍정적·부정적 보상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녀수가 2명인 사위보다 3명이상인 사위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자녀가 2명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신혼기를 지났고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명 이상인 사위의 경우, 다자녀 출산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기 때문일 것이고 이는 높은 결혼만족도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온 연구 결과(Sim & Chung, 2004)와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자녀수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Jeong, 2007)도 있듯이, 일관된 해석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다수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뿐, 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수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의 요인은 변화시키거나 변화가 불가능한 요소(Lee, 2001)이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배우자 영향의 경우 교육수준, 직업,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원을 졸업한 사위가 전문대를 졸업한 사위보다 배우자 영향이 높았다. 이는 부부권력의 측면에서 고학력자일수록 보다 평등을 지향하여 아내의 영향력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사위의 직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으나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사위가 2명인 사위보다 배우자 영향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제시된 결혼만족도와 자녀수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하리라 생각된다. 부부간의 좋은 관계는 다자녀 출산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동시에 배우자의 영향력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배우자 충성도의 경우 사위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1명인 사위보다 3명 이상인 사위가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시대적 변화로 인한 처가

와의 거리 감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장모는 딸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장모의 도움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적 만족도가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은 단일한 변인이 아니고 여러 변인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에서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위의 장모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부모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관계 불만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 I-A. Park(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부양의식과 관계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장인·장모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 부담감이 높아지는 Woo(200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친족관계가 탈부계화 혹은 양계화의 변화 양상(Han & Yoon, 2004)을 띄고 이러한 변화가 사위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아직까지 관념상 아직도 부계 중심적인 의식이 많이 존재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전보다 양계적 특성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전과는 달리 본가와 처가를 비슷하게 방문하거나 처가를 본가보다 더 자주 방문하고 있고(Kang et al., 2005), 정서적 도움이나 일손 도움은 아내 쪽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있다(Lee et al., 2002). 또한 Jeon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도움은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가와와의 빈번한 접촉 및 교류의 증가는 장모-사위 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장모에 대한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사위의 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의식적 측면의 변인은 실제 행위와의 불일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부양의식의 경우, 관계 만족도에서 나아가 실제 부양행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연구문제 3에서 부부관계의 질 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 영향 정도가 높을수록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먼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며느리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 때 고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보고한 I-A. Park(2008)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적 만족도가 상대 부모와의 관계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부관계가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Jeong, 2009; Lee, 2010; Park, 1994; Yoo, 2006), 반대로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고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장모-사위 관계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Park(1994)의 연구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시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며느리의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이 또한 추후 장모-사위 관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장모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다면 딸에 대한 집착 및 딸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관여가 적어질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장모-사위 간 갈등 요소의 감소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장모와 사위 쌍을 대상으로 장모의 결혼만족도가 사위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의 한 변인으로 장모의 결혼만족도를 포함시켜 그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영향 정도가 높을수록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 영향 정도가 높을수록 며느리의 고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Rittenour(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고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남편의 지지와 격려는 고부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반면, 남편의 지지가 없을 경우 고부갈등이 증폭된다는 Park(2005)의 연구와도 맥락이 통한다. 이처럼 고부관계에서 아들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듯 장모-사위 관계에서도 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장모와 사위 간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인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 역할을 하는 아내(딸)와의 관계가 장모-사위 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모-사위 관계 연구로 사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상대가 되는 장모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 둘의 양방향적 접근은 장모-사위 관계 연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배우자 충성도는 사위의 장모-사위 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내가 장모에 우선하여 남편에게 무조건적 편들을 보이는 것보다는 상황이나 사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남편의 특성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즉, 감정과 공감을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 의사소통을 보이는 여성과는 달리, 이성적이고 문제 중심의 해결 지향적 의사소통 패턴을 보이는 남성의 특성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문제 4에서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장모

부양의식, 부부관계의 질(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 배우자 충성도)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장모 부양의식이 그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위와 그의 배우자 간의 관계적 측면보다 사위 본인이 지니고 있는 부양에 대한 가치나 규범적 의식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더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인척관계에서의 만족도는 부부의 관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발적인 부양의식이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을 제고해 볼 수 있다.

한편,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자녀수가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통제한 2단계에서 자녀수, 아내의 출생 순위, 장모 부양의식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과 장모 부양의식을 통제한 3단계에서 자녀수, 장모 부양의식, 결혼만족도, 배우자 영향이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변수들이 투입된 3단계에서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준 자녀수는 장모-사위 관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자녀수와 가족 구성원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Choi, 1992; Lee & O, 1988). 하지만, 자녀의 출생은 기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틀림없다.(Lee & Park, 2010).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장모가 딸 부부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를 낳고, 이에 따른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장모-사위 관계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떠오르는 화두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나, 정작 그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자가 살펴본 변인들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라 생각되며 고부관계 연구처럼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고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인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ferences

- Ades, L. (2003). Predictors of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aughter-in-law and mother-in-la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delphi University, New York, USA.
- Adler, L. L., Davis, W. M., Ahmed, R., Mrinal, N. R., Mukherji, B. R., & Morgan, N. (1989). The perception of mother-in-law and father-in-law:

-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19, 245-254.
- Bryant, C., Conger, R. D., & Meehan, J. (2001). The influence of in-laws on change in marital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3(3), 614-626.
- Cho, H-S. (2003). Som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1), 91-116.
- Choi, D-S. (1992).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mponent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K-R. (1987). A study of variable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urban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K-R. (2007). The theory of family-relationship. Seoul: Kongdongche.
- Han, K-H., & Yoon, S-E. (2004). The Bilateralization of the Kinship Relation in Korean Families: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 177-202.
- Hankyung. (2007, August 23). The stres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comes close to confli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2181071>.
- Herald Business. (2010, April 1). A higher confli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is new trend of matriarchal society? New confli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 mother-in-law vs son-in-law.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90421000204>.
- Jeon, S-S., Kim, S-K., & Jeon, G-Y. (2011). The Effect of Relationship Variable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on Son-in-Law's Relationship-Satisfaction and Negative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7), 123-133.
- Jeong, E-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H-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s with in-law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J-J., Kim, K-J., Kim, S-K., Kim, Y-H., Park, J-H., Bae, S-H., et al. (2005). The story of marriage rewritten by women. Seoul: goeswin.
- Kim, J-Y. (2001).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care of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Kyonggi, Korea.
- Kim,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aregiving and caregiving stress of adul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 Kim, S-J. (1994). Couple's expectations and evaluations on man's family role performances and their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S. (2001).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care of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Kyonggi, Korea.
- Kwon, J-J. (198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 in Law and Daughter in Law in Urban Middle Class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D-W., Kim, H-J., Choi, S-H., Ham, I-H., & Kim, S-Y. (2002). *The Current address of Korean families*. Seoul: Hakjisa.
- Lee, E-H. (2001). A Study on the Coping Strategi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Dual-Earn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5, 288-314.
- Lee, H. (2010). Effects of conflicts with mother-in-law on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pouse undermining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H. (1998). The impacts of the filial responsibility and the support of siblings on caregiving burden of daughters-in-law in rural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W., & Kang, K-Y. (2001). Perception of Equity · Decision-Making Sty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 Dual-Career Coup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9), 137-152.
- Lee, J-W., & O, K-H. (1988). A Study on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6(1), 131-148.
- Lee, J-Y. (1990). A Study on Conflict Perceived by Daughters-in-law and Their Cop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8(2), 135-146.
- Lee, K-N. (2001). Intimacy and support concepts between married daughters and their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Kangwon, Korea.
- Lee, M-S. (1997). The Couples's Marital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Familism. *Journal of Human Science*, 17(1), 87-105.
- Lee, M-S. (2000). The Influence of Couples 'Sex-Role Attitude and Wives' Domesticity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with Reference to Wives' Job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4), 145-161.
- Lee, Y-S., & Park, K-R. (2010). *The modern family-relationship studies*. Seoul: Sinjeong.
- Lim, J-S. (2007). Influence of Intimacy with Spouse on Awareness and Burden of Supporting Old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Limary, H. B. (2002). The Mother-in-Law / Daughter-in-Law dyad: Narratives of relational development among in-law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Albuquerque, USA.
- Nicol, D. E. (2006). In-law conflicts on television: A content analysis is of 'Everybody loves Raymo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SA.
- O, K-H. (1997). A Study on the conjugal role structure according to the degree of closeness of kin net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O. (1990). The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s and daughter-in-law in accordance to family life cycle: Focusing on families with mother and daughter in-laws living toge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I-A. (2008). A study on the adult children's maladjustment to the relation with the old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H. (199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daughter-in-law.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S. (2000). A comparative Study on the Type and Awareness of Supporting Old Parrents by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Y. (2005).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he daughters-in-law's relationship with mothers-in-law.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Men's experiences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Rittenour, C. E. (2007). Relational dialectics with in the parent-and child-in-law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entral States Communication Association in Minneapolis, MN.
- Rittenour, C. E. (2009). Communication and shared family identity in mother-in-law / daughter-in-law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relational outcomes and future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braska, Omaha, USA.
- Schumn, W. R., Paff-G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et

-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im, S-A., & Chung, O-B.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mong Secondary School Married Femal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141-156.
- Son, S-H. (2004). Impacts of intimacy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on the caregiving behaviors and the caregiver burde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H-A. (1987).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elderly mothers and adul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Statistics Korea. (2003). *Social Indicators in Korea 2003*. Seoul: Editorial Department.
- Suh, J-A. (2008). The Study on a working woman's consciousness of the support of the elderly people: Centering on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Sung, M-O., & Lee, H-J. (2002). The Influences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n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Femal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18(1), 185-206.
- Weekly Kyunghyang magazine. (2005, March 1). A Mother-in-law likes frank son-in-law.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9217&code=115&s_code=n0002.
- Woo, M-H. (2003). A study on sons-in-law's support consciousness toward wives' fathers and mothers : focusing on the support consciousness and mutual interchan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oo, K-S., Kang, S-H., O, A-L., & Lee, J-H. (2011).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1), 117-136.
- Yoo, Y-J. (1986). An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Yoo, Y-J. (2006). Effects of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and conflicts with in-Laws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H-J. (2010). A study on solidity of kinship ties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접 수 일 : 2011년 11월 25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2월 5일